

폴란드 사무소/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센터 주요 프로젝트 동향 보고 (11월 3주~11월 4주)

□ 정책 및 시장 동향

① 폴란드 경제 동향

- S&P, 폴란드 장기 외화 신용등급 'A-' 및 안정적 전망 유지(11.7)
 - S&P는 폴란드의 장기 외화 신용등급을 'A-'로 발표
 - 이번 평가는 향후 2년간 폴란드의 중기적 경제 성장 안정성과 급격한 공공부채 증가로 인한 경제 취약성 위험 사이의 균형을 반영한다고 설명
 - 올해 초 무디스와 피치는 폴란드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(negative)으로 조정했으나, 신용등급 자체는 현 수준 유지
 - 3대 주요 신용평가사 중 무디스가 폴란드 신용도를 'A2'로 가장 높게 평가하며, 피치와 S&P는 'A-'로 무디스보다 한 단계 낮게 평가
- 폴란드 경제성장 및 인플레이션 전망 2025~2027(NBP, 11.7)
 - 2025~2027년 CPI 인플레이션* 전망은 각각 3.7%, 2.9%, 2.5%로 예상되며, 근원 인플레이션**은 3.3%, 3.1%, 2.9%로 전망됨
 - * CPI 인플레이션 :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의미하며, 소비자가 구입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하여 산출, 소비자의 체감 물가 변화를 가장 잘 반영함
 - ** 근원 인플레이션 : CPI에서 변동성이 큰 항목(주로 에너지, 신선식품 등)을 제외하고 산출되는 인플레이션 지수로, 단기적 외부 충격에 탄력성이 높으며, 정책 결정 시 활용되는 물가 지수
 - GDP 성장률은 2025년 3.4%, 2026년 3.7%, 2027년 2.6%로 예상
 - 2025년 성장률 하락 요인은 2분기 투자 부진, 폴 국가 운영 프로그램(National Operational Programme)하 EU 자금 집행 지연, EU 집행위의 자금 사용 가능 기간의 2026년 말까지 3개월 연장 등이 지목됨
 - 2026년 성장률 상승 요인으로서는 KPO(Krajowy Plan Odbudowy, 국가 회복계획) 프로그램을 통한 EU 자금 집행 가속화와 기준금리 인하(총 0.75%p)에 따른 수요 증가 기대가 있음
 - 2025년 에너지 가격 상승률은 낮아졌으며, 가정용 전기 요금 상한제 연장이 반영되었으나, 3분기 비가공식품 가격 상승으로 CPI에 미치는

영향은 제한적임

- 2026~2027년에는 경제활동 개선으로 생산 능력 대비 수요가 증가하면서 인플레이션 하락 속도가 제한되고, 2027년 CPI는 소폭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됨
- 폴란드, 2021~2027년 EU 기금 계약 체결률 54.9% 달성(11.16)
 - 2021~2027년 EU 지역개발·통합 기금(EU Cohesion & Regional Development Funds) 활용을 위한 프로젝트 21,627건 계약이 체결됨
 - 계약 대상 사업의 총 지출 가능액은 2,245억 즈워티, 이 중 EU 자금은 1,745억 즈워티로 전체 배정액 대비 54.9% 차지
 - 신청 단계에서는 65,526건의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었으며, 총사업비는 5,285억 즈워티, 이 중 EU 자금은 4,047억 즈워티
 - EU 기금 활용 속도는 계획 대비 양호한 수준으로, 국가 및 지역 프로그램 모두에서 활발히 집행 중
 - 폴란드 기금 및 지역 정책부는 공모와 계약 체결을 통해 남은 자금 집행 속도도 지속적으로 높일 계획이라고 밝힘
 - 계약 체결 사업은 교육, 인프라, 디지털화, 친환경 프로젝트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음
- 폴 재정적자 10월 기준 2,270.9억 PLN, 연간 계획의 78.6% 집행(11.18)
 - 2025년 1월~10월 누적 재정 적자는 2,270.91억 즈워티로 연간 계획의 78.6% 수준
 - 같은 기간 세입은 4,717억 즈워티(74.5%)로 전년 대비 9.2% 감소, 지방 재정 개편 영향이 주요 요인
 - 세수 구성 중 부가가치세(+10.2%), 소비세(+2.5%), 법인세(+6.4%)는 증가했으나, 개인소득세(PIT)는 지방정부 배분 확대 개편으로 중앙정부 세수는 0 즈워티로 나타남
 - 지방정부로 이전된 PIT 세입은 1,606억 즈워티로 전년 대비 164% 증가,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전체 PIT는 전년 대비 13.6% 증가
 - 세외수입은 543억 즈워티로 전년 대비 1.2% 증가

- 1~10월 지출은 6,988억 즈워티(75.8%)로 전년 대비 7.6% 증가
- 증가한 지출에는 2020년 코로나 위기 지원 목적으로 발행된 PFR(폴 개발기금) 채권 346억 즈워티, BGK(폴 국영개발은행) 채권 상환 216억 즈워티 등 총 562억 즈워티의 일회성 지출이 포함됨
- 2025년부터 주류·와인·맥주·중간재 등에 대한 소비세 5% 인상이 반영되었으며, 담배 관련 제품은 2월까지 기존 세율 유지

② 우크라이나 경제 동향

○ 우크라이나 아파트 가격, 지난 1년간 평균 24% 상승(11.12)

-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 아파트 가격이 전반적으로 평균 24% 상승했으며, 도시별·면적별로 차등적인 상승세가 나타남
- 원룸(1-room) 아파트 가격은 하르키우 21,000달러(+16%)로 가장 저렴, 오데사 40,000달러(+22%)로 연간 상승률 최대이며, 리비우 55,000달러(+10%), 키이우가 76,000달러(+13%)로 최고가
- 2룸(2-bedroom) 아파트 가격은 하르키우 33,000달러(+24%)로 상승률 최대, 드니프로 36,000달러(+3%)로 상승률 최소, 오데사 55,000달러(+18%), 리비우 74,000달러(+14%), 키이우 114,000달러(+11%)로 최고가
- 3룸(3-bedroom) 아파트는 하르키우 43,000달러(+22%)로 가장 저렴하지만 상승률은 최대, 드니프로 50,000달러(+12%), 오데사 69,000달러(+17%), 리비우 92,000달러(+12%), 키이우 168,000달러(+14%)
- 전반적으로 하르키우·드니프로는 가격은 낮지만 상승률이 높거나 변동성이 큰 편이고, 키이우·리비우·오데사는 가격이 높고 안정적 상승세를 보임

○ 우크라이나 기업, 태양광 패널 및 BESS 수요 급증(11.12)¹⁾

- 태양광 및 BESS 설치 전문기업 Alteco Group에 따르면, 올해 우크라이나에서 태양광 패널 설치 수요 25% 증가, BESS(Battery Energy Storage System) 수요가 150% 급증

1) 초록색 표기 : 그린 에너지 사업에 대한 명기

- 하반기 기업 고객 문의가 최소 15% 증가하였으며, 우크라이나 시장 내 잠재 계약 규모는 약 40백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
 - 1~9월 전국적으로 약 300개 상업용 태양광 시스템이 설치되었으며, 연간 거래 규모는 약 15억 흐리우냐에 달함
 - 수요 증가 배경에는 중앙 전력망 의존도를 낮추려는 요구가 있으나, 제한적인 금융 조달로 실제 계약은 신청 대비 10% 미만인 것으로 파악됨
 - 업계에 따르면, 최근 설치되는 1MW 이상 산업용 태양광 설비의 대다수가 BESS를 기본 탑재하는 추세
- 전쟁 3년간 건설조달에 200억 달러 투입, 복구 속도는 제한적(11.14)
- 우크라이나는 2023~2024년 연간 약 3천억 흐리우냐 규모의 건설·인프라 조달을 포함해 전쟁 발발 후 총 200억 달러 수준의 건설 조달 집행
 - 현재까지 러시아 침공으로 피해를 입은 의료시설 46%, 교육시설 28% 복구, 파괴된 주택에 대한 보상금 지급액은 10억 달러 초과
 - 주요 조달 사업에는 지역 도로 보수, 크리비리흐·마르가네츠·미콜라이우의 상수도·급수 시스템 개선, 학교·병원 등 공공시설 복구, 에너지시설 보호 조치 등이 포함됨
 - 그러나 2024년 말 기준 주거 및 인프라 피해액이 800억 달러, 전체 재건 수요는 1,900억 달러에 달해 현재의 조달 규모만으로는 복구 수요 충족이 어려운 상황임
 - 복구 속도가 더딘 이유로는 자원 부족뿐 아니라 낮은 입찰 경쟁률, 행정적 절차 지연 등 구조적 문제도 지적됨
 - 건설 조달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키이우시·키이우주를 비롯해 비니차,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, 하르키우, 오데사 지역으로 나타남
 - 전문가들은 향후 복구 속도 제고를 위해 국제 금융 지원 확대, 조달 절차 간소화, 지역 간 불균형 해소가 필요하다고 평가함
- 지토미르·오데사 지역에 산업단지 2곳 신규 조성(11.17)
- 지토미르주 코로스텐시에 78ha 규모의 ‘코로스텐-포딜스키’ 산업단지

신규 등록, 제조업 유치를 목표로 하며 총 2,300~4,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전망

- 코로스텐 시의회는 해당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약 150백만 흐리우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, 지역 산업 기반 확대를 중점 추진 중
- 오데사주 네루바이스크에는 21ha 규모의 '넥서스 오데사(NEXUS Odesa)' 산업단지가 신규 등록, 식음료·기계·금속구조물·건설자재 생산 및 대체에너지 등 다각적 산업 활동이 예정됨
- 넥서스 오데사 단지는 약 1,000개 일자리 창출과 748백만 흐리우냐 이상의 투자 유치가 예상되며,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의 산업·에너지 분야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됨

③ 폴란드 인프라 및 외교 동향

○ Orlen - Naftogaz 2026년 가스 공급 계약 체결(11.07)

- 폴란드 에너지 기업 Orlen과 우크라이나 국영 Naftogaz가 2026년 천연가스 공급 계약을 체결
- Orlen은 미국산 LNG 3억m³ 이상을 Gas Interconnector Poland - Lithuania 파이프라인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공급할 예정
- 모티카 장관은 이번 계약이 지역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조치이며, 러시아의 공격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크라이나 및 인근 국가의 지원을 위해 폴란드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강조
- Orlen은 이번 계약에 따라 2026년 1분기 LNG 3회분이 공급할 예정, 수입 LNG는 Orlen이 운영 권한을 가진 Swinoujście 터미널에서 재기화(regasification) 후 GIPL을 통해 우크라이나로 이송될 예정
- 이번 계약은 양사 간 기존 협력을 이어가는 것으로, 2025년 초 Orlen은 이미 6억m³ 이상의 가스를 Naftogaz에 공급한 바 있음
- 계약이 완료되면 Orlen의 Naftogaz 공급 총량은 약 10억m³에 달할 전망

○ VSB Polska, 폴란드 최대 신재생에너지 단지 착공(11.10)

- 돌노실롱스키에주 브제진카(Brzezinka) 지역(올레슈니차시·브제진카·

시코프군)에 303 MWp 태양광 패널(PV)과 106 MW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(BESS)을 통합한 하이브리드 재생에너지 단지 건설 착공

- 부지 면적 260헥타르 이상, 467,000개 PV 모듈 설치, 약 70km 지중 케이블로 그리드와 연결할 예정
- 진입도로 건설은 진행 중이며 완공 및 상업 운전은 2027년 말 예상

○ 폴 국유자산부, Grupa Azoty 구조 조정 위해 신주 발행 추진(11.13)

- Grupa Azoty 이사회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한 E시리즈 보통주 3,372만 주를 국유자산부에 배정하는 약 6억 즈워티 규모의 신규 주식 발행을 추진
- 이는 총부채 100억 즈워티 이상으로 악화된 재무 건전성 회복을 위한 긴급 조치로 평가됨
- 신주 발행가는 주당 17.80 즈워티로 설정되었으며, 정부의 단독 참여 방식은 사실상 국유자산부를 통한 구제금융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분석
- 회사는 추가로 최대 4,047만 주 범위 내 후속 증자를 검토 중이며, 이는 국유자산부를 포함한 다양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유동성 확보와 부채 완화를 위한 재원 마련 목적임
- 조달 자금은 그룹 계열사 설비 투자에 활용될 예정이나, 시장에서는 단기 유동성 확보와 부채 감축 목적이 더 큰 것으로 평가됨
- 핵심 자회사 Polimery Police는 총 80억 즈워티 이상 투자된 사업임에도 시운전 이후 손실이 지속돼 약 10억 즈워티 규모로 Orlen에 매각될 가능성이 높게 관측됨
- Police 공장 매각 대금과 예정 증자를 합산해도 약 14억 즈워티에 불과해, 구조적으로 높은 부채를 가진 Grupa Azoty의 장기 재무 위기 해소에는 충분치 않다는 분석이 제기됨
- 비료 시장 회복 전망 역시 EU-MERCOSUR(남미 경제공동체) 협상 진전 상황에 따라 불확실성이 존재하며, 이는 Grupa Azoty의 중장기 사업 전망에 추가적인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

○ ARP, 원전 건설 기업 대상 'Atom Without Barriers' 대출 프로그램 발표(11.13)

- ARP는 역내 기업의 폴란드 및 해외 원전 건설 프로젝트 참여 확대를 위해 30만~1백만 즈워티 규모의 인증 지원 대출 프로그램 발표
- 해당 프로그램은 폴란드 원전건설 참여 기업들의 NQA-1(ASME) 등 국제 품질·안전 인증 취득을 위한 자금을 지원
- 기업들은 NQA-1 외에도 ASME, AWS, ISO 6527/7385/8107, IEC, IEEE, ACI CODE-349-23 등 다양한 인증이 필요하며, ARP는 인증 비용 2억 즈워티, 공정·설비 개편 비용 5억 즈워티로 추정함
- ARP는 인증대출 외에도 InvestEU 보증이 포함된 투자 대출, EU 지원사업 대응 개발 대출, 설비 리스 등 복합적 금융 패키지를 제공하며, 산업특별구역 입주 시 최대 70% 법인세 감면 혜택도 부여함
- 폴란드 첫 원전(3,750MW, 포메라니아주 쏫체보 지역)은 약 1,920억 즈워티 규모로 막바지 준비 단계
- NQA-1 인증 신청 기업으로는 FAMAK, Energomontaż-Gdynia Północ, Mostostal Siedlce·Kraków·Kielce, Ferrum 등이 포함
- 해당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폴란드 기업의 원전 공급망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수주 경쟁력을 강화할 전망

○ Tauron, 2026~2027년 폴 남부 광역권 대상 전력공급 계약 수주(11.13)

- 에너지 공기업 타우론이 남부지역 광역권(GZM, Górnośląsko-Zagłębiowska Metropolia) 전력공급 공공조달 입찰에서 최종 선정
- 이번 입찰을 통해 2026~2027년 동안 약 13,000개 사용지점, 30여 개 기초지자체에 총 93만 MWh 전력을 공급하는 531백만 즈워티 규모 계약을 확보
- 2년 전 대비 약 33% 낮은 전력 단가를 제시하며 경쟁력을 확보, 전국 최대급 지방정부 구매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한 조달 사업임
- 공급 대상은 시청, 학교, 병원, 진료소, 사회복지시설, 거리 조명 등 지방정부·공공기관 전반으로, 폴란드 국립라디오교향악단 본관 포함

- 타우론은 13년 이상 GZM 지역 지자체에 전력을 공급해온 경험이 있으며, 이번 계약으로 지역 내 시장 지위를 강화할 전망
- 최근 크라쿠프 입찰에서도 낙찰, 향후 2년간 58만 MWh, 약 3,600개 사용 지점에 전력 공급 계약을 추가 확보함
- 타우론은 개인·법인 포함 6백만 명 이상 고객을 보유한 폴란드 최대 전력 판매업체 중 하나로, 연속 대형 입찰 수주는 시장 점유율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됨

○ 폴란드 하원, ESS 투자 절차 완화 규정 통과(11.12)

- 폴란드 하원은 건축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, 에너지저장설비 (Energy Storage System, ESS) 설치 시 과도하게 복잡했던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제도 개선을 확정
- 기존 정부안은 20kWh 이하 ESS만 건축허가 면제 대상으로 규정, 사실상 대부분의 주거용·산업용 ESS가 대규모 에너지 프로젝트와 동일한 절차를 적용받는 비효율이 제기됨
- 폴 에너지저장산업협회(PSME)는 ESS의 건물 내 설치인지 독립형 (freestanding)인지에 따라 차등 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안
- 개정안에 따르면 30kWh 이하 ESS는 건축 관련 절차를 전면 면제, 배전망 운영자(OSD) 신고만 의무화됨
- 건물 내 30~300kWh, 독립형 30~2000kWh 규모 ESS는 건축허가 대신 '부지 개발 계획' 및 '화재안전 조치'만 요구되어 절차가 크게 완화
- PSME는 개정안이 산업 현실을 상당 부분 반영했다고 평가하면서도, 기술 특성과 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규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

○ R.Power - Eiffel, 폴란드·루마니아 PV·BESS 투자(11.13)

- 폴 재생에너지 기업 R.Power는 프랑스 기반 Eiffel Investment Group과 협력해 92MWp PV 자산과 루마니아 127MW/254MWh BESS 자산의 소수지분을 매각함

- 양사는 폴란드에서 최대 56MWp PV와 51MW BESS의 통합 하이브리드 프로젝트를 추진하며, 기존 92MWp PV 자산도 순차적으로 통합형 발전으로 전환할 예정
- R.Power는 이번 거래가 다국가·복합 구조 프로젝트 수행 역량을 입증하는 사례라고 평가함
- Eiffel은 PV - BESS 통합 프로젝트 투자가 폴란드·루마니아 시장의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하며, R.Power와의 협력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발표

○ 폴란드, 혁신 생태계 강화 위해 수십억 즈워티 투자(11.15)

- 폴란드는 역내 기업 성장과 혁신 촉진을 위해 대규모 투자 프로그램인 'Innovate Poland'을 발표
- BGK(국영개발은행), PFR(국영개발기금), PZU(국영 보험사)가 공동으로 초기 40억 즈워티를 출자했으며, 민간에서 최소 40억 즈워티 추가 투입할 것으로 예상
- 재무부 도만스키 장관은 혁신 기업의 국내 자금 부족으로 인한 해외 투자 의존을 해소하는 것이 본 프로그램의 목표라고 언급
- 프로그램은 스타트업부터 상장 준비 단계까지 250개 혁신 기업의 자금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며, 자본금 40억 즈워티는 소규모·유망 기업 대상 지원 재원으로 우선 활용될 예정
- 본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강화와 혁신기업 성장 촉진,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전환점으로 평가됨

○ EU, 폴란드에 62억 유로 규모 회복기금 3차 분할금 지급 예정(11.17)

- EU는 폴란드 국가회복계획(KPO) 3차 분할금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며, 11월 17일 최종 승인될 예정
- EU 사전심사 기구가 이견 없이 사전 승인을 완료했으며, 회원국 최종 승인 후 EU 집행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지급을 확정하게 됨
- 승인 시 총 62억 유로가 폴란드에 제공되며, 해당 재원은 EU가 금융 시장에서 조달해 폴란드 정부에 이전할 예정임

- 지원금은 교육, 디지털화, 청정에너지, 교통 등 핵심 분야의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해 폴란드의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을 강화하는 데 활용될 계획
- 폴, 2026년 SAFE 프로그램 통해 사전 자금 6.6억 유로 확보(11.18)
 - 2026년 출범 예정인 EU SAFE(Supporting Armed Forces Europe)를 통해 사전 자금(pre-financing) 조달로 약 6.6억 유로 확보 예정
 - 해당 자금은 주로 EU 공급업체를 통한 군수 장비 구매에 사용되며, 폴란드는 해외 조달 비중이 약 70%인 구조로, 자금 활용 시 구조적 변화가 예상됨
 - 전체 배정 규모는 43.7억 유로로 GDP 대비 5.2% 수준이며, 비슷한 비율로 배정된 국가는 발트해 3국과 헝가리임
 - SAFE 자금은 2030년까지 사용, 폴란드의 경우 기존 계획 프로젝트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경제 성장에 추가적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
 - 자금 사용이 유로화로 이루어질 경우,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나, 역내 사용 시 외환보유고 증가와 은행 시스템 내 유동성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음
 - 금융 전문가들은 SAFE 자금의 주요 장점으로 조달 용이성과 낮은 금리를 꼽으며, 방위력 강화, 폴 내 방위 산업 기술 역량 강화, 조달 경쟁력 향상 효과를 기대함

④ 우크라이나 정부외교 및 정책

- 러시아, 우크라 전력 인프라 동시 타격, 전국적 정전 확대(11.10)
 - 우크라 에너지부에 따르면, 러시아는 발전시설과 송배전망을 동시에 공격하고 있으며, 이로 인해 전력 공급 복구와 시스템 안정화에 심각한 제약을 초래함
 - 11월 7~8일 동안 오데사(DTEK 시설), 하르키우·드니프로페트롭스크·자포리자, 키이우, 키로보흐라드, 폴타바 등 다수 지역이 드론·미사일 공격을 받으며, 전국적으로 비상·계획 정전이 확대됨

- 피해 상황으로는 폴타바·하르키우·키이우 지역의 핵심 전력시설 파손, 국영 Centerenergo의 모든 화력발전소(TPP) 가동 중단, 하멜니츠키·리브네 원전 변전소 표적 공격, 나프트가즈(Naftogaz) 가스 인프라 장비 손상 등이 포함됨
- 이러한 집중적·지속적 공격으로 우크라이나의 전국적 전력안보와 겨울철 전력 공급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함

○ 캐나다 투자자, 리브네 지역 폐기물 재활용 시설 검토(11.12)

- 캐나다 프로젝트 개발사 Projex International는 리브네주 두브노시를 방문, 지방정부와 폐기물 에너지화 재활용 사업 추진 논의 및 폐기물 재활용 기업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(MOU) 체결
- 프로젝트 총 투자액 28백만 유로, 사업 기간 36개월, 일일 500톤 폐기물 처리 규모, 폐기물을 전기·열 에너지로 변환하여 지역 에너지 자립성 강화 기여
- 프로젝트 완료 시 약 70개 신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, 폐기물 재활용 시설 구축을 통한 지속 가능한 폐기물 관리 체계 마련
- 장기적으로 지역 내 폐기물 처리 문제 해결과 경제적·환경적 편익 제공, 재생 가능 에너지 활용 확대

○ Ukrenergo, 국제 파트너로부터 150백만 유로 지원 확보(11.14)

- 우 에너지 기업 Ukrenergo는 EBRD와 기타 국제 재정 파트너로부터 150백만 유로를 지원받아 전력망 복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
- EBRD는 국가보증 대출 형태로 최대 90백만 유로를 제공하며, 해당 자금은 변전소 재건, 전력 장비 비축, 송전망 연계 장비 확보에 사용
- 이 외에도 기타 국제 재정 파트너들이 최대 60백만 유로 규모의 보조금을 추가 지원
- 지원 대상은 기존 변전소 3곳 재건과 신규 변전소 건설로, 이를 통해 전국 전력망의 안정성과 장기적 복원력 확보
- EBRD는 2022년 2월 이후 Ukrenergo에 3차례 대출을 제공해 왔으며, 러시아 침공으로 손상된 전력망 긴급 복구 및 지속적 지원 수행

○ EU, 우크라에 대한 2026~2027년 대규모 재정지원 방안 논의(11.12)

- EU 재무장관들은 2026~2027년 우크라이나 지원(약 1,300~1,400억 유로 규모) 재원 조달 방안을 검토
- EC는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전후 배상 대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,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로부터 실제 배상을 받는 경우에만 대출을 상환하도록 함
- 다만 벨기에는 러시아의 소송 가능성을 우려해 반대 입장을 표명
- EU 회원국이 시장에서 직접 차입해 우크라이나 지원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으며, 이 경우 발생하는 이자 비용은 EU가 부담
- 노르웨이는 1,800억 유로 규모 국부펀드에서 약 1,000억 유로 지원 보증을 검토 중이며, 2022년 러시아 침공 이후 가스 가격 상승으로 추가 수익을 얻은 것을 기반으로하고 있음

○ EBRD, 우크라 Horizon Capital Catalyst Fund에 30백만 유로 출자(11.14)

- EBRD는 12월 17일 신규 Horizon Capital Catalyst Fund SCSP에 30백만 유로 출자 여부를 결정할 예정
- 해당 펀드는 우크라 중견기업 대상으로 20백만~50백만 유로 규모의 투자를 수행하며, 에너지, 디지털 인프라, 건설 서비스, 건설자재 분야에서 장기 자본 성장을 목표로 운용
- Horizon Capital은 올해 6월 3억 유로 규모 Catalyst Fund 조성을 발표, 전쟁 종료 이후가 아닌 “지금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투자자” 참여를 강조
- 펀드 목표는 최소 3억 유로 자금 모집이며, 우크라 내 투자 우선 프로젝트 등을 통해 총 35억 유로 규모 자산 동원 계획
- 2025년 4분기에 1차 투자자 모집 완료 예정이며, 출범 시점에 이미 30여 건 이상의 거래가 검토 진행되고 있어, 총 20억 이상의 투자 수요가 확인됨

○ 우크라이나, 그리스 통해 미국산 LNG 수입 추진(11.16)

- 젤렌스키 대통령의 아테네 방문을 계기로, 우크라는 겨울철 에너지

수요 충당을 위해 그리스를 경유한 미국산 LNG 수입 방안을 발표

- 수입된 LNG는 발칸반도 횡단 파이프라인을 통해 우크라이나로 운송되며, 러시아의 에너지 인프라 및 가스 생산시설 공격 이후 전력 안정화에 필수적 요소로 평가
- 이번 조치는 그리스가 최근 미국산 LNG 장기 도입에 합의한 데 이어 추진되는 에너지 협력의 연장선으로 평가됨
- EU는 지난 10월 2027년부터 러시아산 LNG 수입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, 이번 협력은 유럽의 에너지 공급원 다변화 정책에 따른 조치임

○ 프-우, 최대 100대 라팔 전투기 구매 의향서(LOI) 체결(11.17)

-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파리 인근 빌라쿠블레 공군기지에서 최대 100대 라팔(Rafale) 전투기 구매와 관련 무기체계, 방공장비, 드론을 포함한 의향서(LOI)에 서명
- 이번 의향서는 향후 10년간 우크라이나가 프랑스로부터 군사 장비를 확보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하며, 전투기와 무장뿐만 아니라 차세대 방공시스템, 레이더 시스템, 드론 등이 포함
-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협력이 세계 최대 규모의 방공체계 구축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으며 마크롱 대통령은 이를 “위대한 날 (A great day)”이라고 언급
- 젤렌스키 대통령은 휴전 시 우크라이나 내 설치 가능성이 있는 유럽주도 평화유지군 본부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별도 일정을 계획 중

□ 주요 프로젝트 동향

① 종합계획수립(마스터플랜,MP) 사업

① M10 산업단지 개발 타당성조사 용역

< 사업 개요 >

- (발 주 처) 해외건설협회, KIND, 태웅로직스
- (용 역 사) 삼일회계법인, 법무법인지평
- (용 역 비) 730백만원
- (용역기간) 2025.2.~2025.12(304일)
- (추진현황) '25. 2월 용역 계약 및 국내 착수보고
'25. 3월 현지 착수보고
'25. 6월 중간보고회 개최
'25. 12월 최종보고회 개최 예정

○ (주요동향) 사업주 간 투자구조 및 조건 협의

② 6대 선도 프로젝트(참고)

② 폴란드 투자개발형 및 타당성 조사사업

① 석화(PDH/PP) 플랜트 건설 운영사업

< 사업 개요 >

- (사 업 주) Grupa Azoty, Orlen, 현대엔지니어링, KIND
- (사 업 비) 1,840백만불
- (사업내용) 폴리프로필렌 연간 43만톤 생산
- (추진현황) '19. 4월 KIND 참여의향서 제출
'20. 10월 금융종결
'25. 8월 발주처, EPC 관련 보증 회수(Bond Call)
'25. 10월 Orlen, Grupa Azoty에 250백만불 규모 투자안 제안

○ (주요동향) EPC 관련 보증 회수(107백만유로)로 중재절차 착수 예상

② 폴란드 우치 WTE 건설 운영 사업

< 사업 개요 >

- (사 업 주) 베올리아, KIND, 남부발전
- (사 업 비) USD 480백만
- (사업내용) 폐기물 연20만톤 처리, 전기 18.6MWe 및 열 57 MWt생산
- (추진현황) '25. 3월 베올리아측 한국 사업주에 사업참여 제안
'25. 4월 사업참여를 위한 사업선정위원회 승인 및 MOU체결
'25. 5월 Non-binding Offer 제출 완료(남부발전)
'25. 6월 사업참여 외부 자문용역 실사 완료
'26. 1분기 KIND 내부 투자심의위원회 예정

○ (주요동향) 사업참여를 위한 상세 사항 외부 자문용역 중

③ 폴란드 바르샤바 단독 주택 단지 개발사업

< 사업 개요 >

- (사 업 주) GS건설, Cordia, KIND
- (사 업 비) PLN 83.34백만
- (사업내용) 총 연면적 5,254m², 중형(수평분리) 및 대형주택(수직분리) 36세대 건설
- (추진현황) '25. 2월 GS건설-Cordia 공동개발 논의
'25. 3월 GS건설, KIND向 사업참여 요청
'25. 6월 KIND 사전검토위원회 승인
'25. 9월 GS건설-KIND간 공동개발업무협약의향서 체결
'25. 11월 투자심의회 부의

○ (주요동향) 12월 이사회 부의 준비 중

④ 폴란드 카토비체 물류센터 개발사업

< 사업 개요 >

- (사 업 주) LX판토스, KIND, PIS펀드
- (사 업 비) € 129.7백만 (약 2,075억원)
- (사업내용) 물류센터 5개동 (연면적 32,984평) 건설
- (추진현황) '24. 4월 물류센터 Phase 1 착공(시공사 자체자금으로 진행)
'25. 9월 물류센터 Phase 1 준공 및 운영 시작
'25. 11월 LH 사업 철회 및 KIND 사업 검토
'25. 12월 KIND 투자심의 및 금융종결 / Phase 2 건축물 공사 착공
'26. 5월 물류센터 Phase 2 준공 및 운영시작

○ (주요동향) 12월 투자 심의 위원회 및 이사회 부의 준비 중

참고	6대 선도 프로젝트 진행현황		
프로젝트명	주요내용	담당기관	추진현황 및 계획
키 이 우 교 통 마스터플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1단계) 키이우 지역 공간개발 및 재건 계획 수립, 우선사업 선정 및 pre-FS 등 * '23.12~'24.11 (수행 : 유신 컨소시엄) • (2단계) 교통모델 개발 및 스마트 모빌리티 시스템 기반 교통계획 수립 등 * '24.5~'24.11 (수행 : 한국교통연구원 컨소시엄) 	KIND LH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현지 최종보고회 개최 (키이우, '25.4월) • 후속사업(디지털교통플랫폼) 2027 국토교통 ODA 추진
우만 스마트 시 티 마스터플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우크라 중부도시 우만市에 대해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한 도시개발전략 수립(스마트도시 기반시설 및 솔루션 등) * '23.9~'24.4(수행 : 제일Eng, 수자원공사 등) 	KIND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현지 최종보고회 개최 (키이우, 4월4주) • 국내기업 등 후속사업 추진 협의중
보 리 스 필 공 현 대 화 재 등 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스마트공항시스템 및 항행안전 시스템 제공 등 현대화사업, 공항 확장·개발 (활주로 등) 사업 및 마스터플랜 수립 등 	한국 공항공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현대화(공항시스템 개선) : '24년 외교부 ODA 선정, PMC 선정 ('24.10월) • 공항MP : 2026 국토교통 ODA 추진중 • 확장FS : 국토부 지원 사업 용역사 선정 및 과업착수('24.12월)
부 차 시 하 수 처 리 시 설 재 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키이우지역 부차市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계획 수립 	환경산업 기술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 ('25년 7월) * 환경부 F/S 지원사업
댐 재건 및 현 대 화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카호우카 댐, 이르핀강 댐 등 재건 기술지원 및 부대시설 설계 등 • 그 외 노후수력 댐 진단 및 현대화 사업 추진 	수자원 공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'24년 기재부 KSP사업 선정(수자원시설 정책, 기술자문), 용역 발주 예정('26년 3분기)
철 도 노 선 고 속 화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우 키이우~폴 바르샤바 구간(919km) 중 우크라 구간(580km) 철도노선 고속화 계획 수립 등 * 우크라는 철도 운영속도 향상(50→150km/h) 추진 중 	철도공단 (* 운영 등 코레일 협업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'24년 외교부 ODA 선정, 타당성조사 용역 사업자 선정 및 착수 예정 ('25.4분기)